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접수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 50%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신청 접수를 1.18.(수)부터 2개월간 받는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인종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소기업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61종 검토·공표 24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1종에는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지도했다.

또한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